

# 소리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새로운 시작, 파자식 한자점자가 필요한 이유

## 테마기획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

## 인터뷰

그림으로 아름다운 공정을 나눕니다.

## 포커스

2017 IBSA Goalball World Youth Championship



## 02 | 목차

## 03 | 점자로 말해요 - 습도

## 04 | 시선집중 - 새로운 시작, 파자식 한자점자가 필요한 이유 이승권(서울맹학교 교사)

## 06 | 테마기획 -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

## 08 | 인터뷰 - 그림으로 아름다운 긍정을 나눕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강주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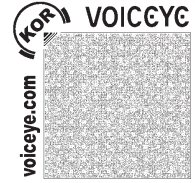
## 10 | 포커스 - 2017 IBSA Goalball World Youth Championship

##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법정스님의 무소유 이현진(시각장애 1급\_충청남도 아산시)

## 13 | 월드 리포트 - MS, 시각장애인 위한 '씨잉AI' iOS APP 출시 - 스위스, 시각장애 아동에게 교실 안내해주는 '셀룰로' 로봇 발명

## 14 | 뉴스앨범 - 2017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 개최 - 토토즐 원데이클래스, 타피스트리 장식 만들기! -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폭삭 속았수다' 실시!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로 무더위를 날려요!

##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름 장마철에는 한참 내리는 비로 인해 주변의 습도가 높아지는데요.

### 습도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습도

① ④  
② ⑤  
③ ⑥

| 점자일람표 |     |   |     |           |     |   |      |   |     |   |     |      |      |     |     |
|-------|-----|---|-----|-----------|-----|---|------|---|-----|---|-----|------|------|-----|-----|
| 자음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된소리 |
| 받침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
| 모음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      |      |     |     |
|       | ㅝ   | ㅟ | ㅡ   | ㅣ         | ㅥ   | ㅧ | ㅩ    | ㅪ | ㅬ   | ㅭ | ㅯ   | ㅱ    | ㅳ    | ㅵ   |     |
| 약자    |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자    | 카 | 타   | 파 | 하   | 억    | 언    | 얼   | 연   |
|       | 열   | 영 | 옥   | 온         | 웅   | 운 | 울    | 은 | 을   | 인 | 것   | 쌔받침  |      |     |     |
| 약어    |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
| 숫자    | 수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      |     |     |
| 문장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   |      |   |     |   |     |      |      |     |     |
| 영어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영어시작 | 끝    | 대문자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히]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 새로운 시작, 파자식 한자점자가 필요한 이유

이승권(서울맹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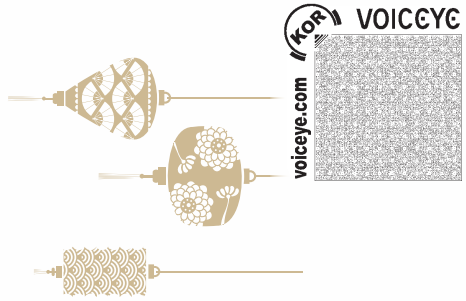
뉴턴의 세계적 명저로 꼽히는 '프린키피아'는 그가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쓰였다.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를 두고 뉴턴이 굳이 라틴어로 저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적 학문 연구를 하려면 그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뿌리가 되는 어휘에 대한 언어적 고증을 거쳐 이론적 체계를 세워 가야 한다. 그런데 유럽 문화권에 있어 로마는 역사적 학문적 배경이 되며 그로 인해 유럽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선 로마의 초기 언어인 라틴어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관문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라틴어를 중시하며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한자가 동양 문화권에서 접하는 비중 역시 유럽의 라틴어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한자와의 연계성을 빼놓고 밀도 있는 학문을 논하기는 어렵다. 우리말의 70% 정도가 한자에서 발생한 것이고 법학을 비롯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전문적 영역으로 갈수록 한자의 사용 비율이 높아져 간다.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은 동양철학이나 동양의학 관련 전문 분야에 종사해 왔다. 이들 분야와 관련된 주요 원전들이 한자로 기술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은 한자점자가 없던 탓에 원전을 직접 접하지 못한 채 누군가 해석한 내용을 통해 지식을 익혀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함축적인 한자에 대한 해석의 일방성과 과·오독의 여지가 상존해 왔다.

한자의 자형은 폭넓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읽는 사람의 생각과 수준에 따라 다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일면적으로 해석된 내용만을 읽게 되니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자 접근이 어렵고 행여 잘못된 해석을 듣더라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기'라고 하면 앞선 시기를 말하는 전기(앞전, 기약할 기)인지, 위인전을 말하는 전기(전할 전, 기록할 기)인지, 전자가 이동하는 전기(번개 전, 기운 기)인지 각각의 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필자는 문자의 3요소인 형과 성과 의에 근접한 한자점자를 만들기 위해선 파자식 표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한자의 기원과 발전 과정 및 제자 원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연구 끝에 파자식 한자점자인 '새 한자'를 고안하였다.



파자를 하면 한자가 무척 쉬워진다. 일반인들은 문자를 보면 그 파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쉽게 한자를 익힌다. 예를 들어 보자.

사람이 나무에 기대면 쉬지 않겠는가?

**사람 인 + 나무 목 = 실 휴**

파자를 하게 되면 한자의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소리까지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어 효율적 한자 습득이 가능해진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물고기가 푸르면 청어일 것이다.

**고기 어 + 푸를 청 = 청어 청**

위의 예에서 보듯 한자는 정말 쉽게 만들어진 글자이다. 파자를 조금만 알면 한자가 무척 쉬워지고 이를 익히는 속도 역시 눈부시게 빨라진다.

이와 같이 이미 한자의 구조 속에는 그 소리와 뜻이 동시에 구현된 경우가 참으로 많다. 그러니 파자를 하다보면 한자가 쉽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파자를 하며 외우게 되면 한자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뜻과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상됨으로 인해 문자 활용 능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한자 습득이 급속도로 확장된다. 파자식 한자점자인 '새 한자'는 시각장애인도 파자를 하여 쉽고 재미있게 한자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 고안되었다.

그간 한자 관련 문자가 없으니 배우는 사람이 없고, 배우는 사람이 없다보니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왔다. 그저 소리와 뜻만을 단순 암기하자니 기억은 힘들고 일면적 활용에 그쳐야만 했던 문자장애를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는 쉽고 어렵고를 떠나 한자는 접근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지냈다. 언제까지 한자만 대하면 보는 사람의 도움에 기대야 하는가? 이제 시각장애인도 한자로부터 소외받던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서 안 하는 일은 있어도, 하고 싶은데 문자가 없어 못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부디 시각장애인도 한자에 대한 부담 없이 풍요로운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 본다.



##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까?



각종 민원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시각장애인도 자주 방문하는데요.

과연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일을 맡는 기관입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이면 누구나 방문해서 자신의 민원을 위한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서울시에 자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을까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최근 서울시 소재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항목별 설치 현황 중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확대경 등 비치용품의 설치(3.3%)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총 20,336개 중 적정설치율은 16.8%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83.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재 424개 주민센터에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적정 설치된 편의 시설은 2010년에는 31.8%, 2013년 12.7%, 2017년 24.4%로 조사되고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와 시설운영 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삶의 큰 변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 운영기관의 지원 및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림으로 아름다운 긍정을 나눕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강주혜

미공, 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인데요.  
아름다운 긍정을 나누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강주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브레일타임즈 독자들에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공주혜'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강주혜입니다.

**사고로 중도에 장애를 얻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5살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얻게 되었죠. 음주 차량과의 사고였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막막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의사는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고 뇌를 다쳐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골반도 으스러지고 오른쪽 손은 마비가 진행되는 등 당시에는 암담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가 있기 전에는 의류 관련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러스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대 초반에는 외국에서 의류 매장을 창업할 생각으로 의류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이 일러스트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취미로 했었는데 4년 뒤 복지관의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홍대에 있는 일러스트 학원에 등록해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죠. 사실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작품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는 뇌를 다쳤기 때문에 현재 사물이 뿌옇게 보이면서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당하게 틀리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볼펜 드로잉입니다. 볼펜으로 드로잉을 한 후 그 위에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궁주혜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진행 중이신가요?**

저는 주로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합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하는 ‘미궁TV’를 통해 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미궁TV’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을 통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향후 전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기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연과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1월에 ‘사사삼-다가갈거야’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을 주제로 그린 작품들인데요. 지난 2016년 10월에는 ‘나가세-나 미궁과 가슴을 짝 펴고 나가자! 세상밖으로’라는 주제

로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상 밖으로 나간 미궁이 세상에 한 발 짝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시 공간과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지만 전시 일정과 공간이 확정되면 SNS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작가님처럼 중도에 시각장애를 얻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도장애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니까. 장애가 벽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요. 장애를 얻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벽을 뛰어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벽을 뛰어 넘어 나오면 세상은 열려 있으니까요. 저 역시 중도장애를 얻은 이후 초기에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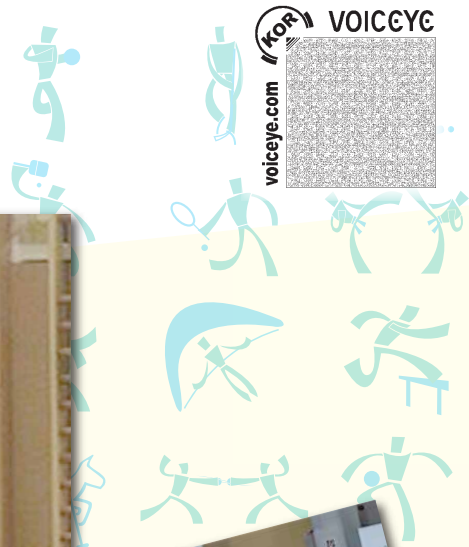


## 2017 IBSA Goalball World Youth Championship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골볼 경기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골볼은 소리 나는 공을 상대팀 골대에 넣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3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촉각을 이용해 경기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대팀의 골대에 더 많은 공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2017 IBSA Goalball World Youth Championship이 열렸습니다.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가 주최하고 헝가리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9개 국가,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각 국을 대표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하여 골볼 실력을 겨루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 남자팀 메달은 미국(금), 브라질(은), 러시아(동)가 차지했으며, 여자팀 메달은 호주(금), 러시아(은), 브라질(동)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8명(선수 10명, 경기임원 6명, 본부임원 2명)이 참가하였는데요,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남자팀 10개국 중 8위, 여자팀 9개국 중 7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골볼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경기 경험과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를 주관한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앞으로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 간의 시각장애인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고, 체력과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법정스님의 무소유

이헌진(시각장애 1급\_충청남도 아산시)

2010년 돌연 법정스님의 입적소식이 들려왔다. 스님의 입적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 시대의 정신적 스승이자, 무소유의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선지식인. 그 분은 2010년 3월 어느 날 조용하게 사바세계를 떠났다.

하지만 법정스님이 입적하신 후에, 스님의 책들은 그야말로 품귀현상을 일으켰다.

무소유는 스님의 삶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스님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난초 두 분을 받는다. 그로부터 난초를 지극정성을 들여 기르기 시작한다. 비료를 주고, 자리를 옮겨주고, 실내온도를 맞춰주는 등 정성껏 아끼고 돌본다. 난초는 그 은혜에 보답하듯 싱그럽게 피어나기쁨을 준다.

그런데 어느 날 노사를 피려 간 길에 난초를 두고 온 것을 깨닫는다. 스님은 허둥지둥 돌아왔지만 이미 난초는 피약벌에 축 늘어져 있다. 그 때 스님은 깨닫는다. 집착이 곧 괴로움인 것을, 그리고 그 분을 베풀게 줌으로써 흥가분함을 느낀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님은 맑고 정결한 언어로 독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흥가분해지라고, 소유와 집착이 주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언제까지 괴로운 집착 속에서 살 것이냐고 하는 말이다.

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소유를 부추기고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뿐이다. TV광고는 아름다운 배우들을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하고, 물건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은밀히 속삭인다. 버스를 타고, 안내 방송 간간이 병원을 홍보하고 학원을 홍보하는 극성스러운 목소리가 끼어들어 우리를 유혹한다.

유감스럽게도 내 머릿속 상당수를 차지하는 생각 역시 물욕이었다. 이제 우리는 물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가 어떤 구두를 신고 있는지,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어느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지 은밀히 살핀다. 그런 세태 속에서 더 값비싼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 고급의 털로 만들어진 옷, 더 좋은 것, 귀한 것, 고급의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을 산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법정스님의 책을 읽고 보니 더 없이 부끄럽고 속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 책에는 물건에 얽힌 이야기기도 있다.

어느 날, 스님의 산방에 도둑이 들어 소용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고, 옷가지도 흘려 놓았다. 가장 불편한 것은 탁상시계가 없어진 일이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새 탁상시계를 사러 간다. 그런데 그 시계 가게에서 자신의 탁상시계를 팔고 있는 한 사내와 마주친다. 스님은 말없이 자신의 시계를 다시 천원에 사들인다.

스님들의 이러한 소유관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낮은 생소한 것이다.

나만해도 그랬다. 오늘날 각자의 물건은 각자의 것이라는 소유관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그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미욕한 생각이 발동하고 우리는 점차 탐욕스러워진다. 이러한 세태를 보며, 법정스님은 본래무일물이라는 불경의 한 구절로 우리를 일깨운다.

본래무일물이란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인연에 의해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가벼릴 뿐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충격에 가까운 깨달음을 얻었다.

죽을 때 결국 이제껏 내가 얻으려 했던 것들은 영혼에 조금의 보탬을 줄 수 없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다.

화엄경에는 녹이 쇠를 먹는다는 구절이 있다. 마음에 생긴 녹과 욕심은 결국 그 사람을 쪼먹고 거꾸로 떨어뜨린다는 뜻일 게다.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구절이 아닐 수 없었다. 얼굴이 그려지는 도화지와 같다는 구절은 어떤가! 이 책을 계기로 나는 그동안 버려두었던 내 마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내 마음의 거울을 마주할 수 있었다. 겉모습을 꾸미는데 치중하고, 온갖 복잡한 것들로 머리를 채우는 사이, 내 마음은 더 없이 황량해졌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정함으로 가득한 도량과 같은 책이었다. 단청이 화려하게 입혀져 있지 않아도 나무와 어우러지고, 산과 탈속한 멋이 있고, 청아한 도량 말이다. 나는 시중 그 도량의 차갑고 청명한 샘물을 길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이제 스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스님이 머무르셨던 오두막을 생각하고, 스님의 다비식을 생각한다. 삶부터 죽음까지 많은 것을 일깨우시고 가신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식, 그분은 홀연히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세계로 가셨지만 그 분의 맑고 향기로운 글들이 남아 있음에 감사한다.

## MS, 시각장애인 위한 ‘씨잉AI’ iOS APP 출시

### 주변 환경 및 텍스트, 사물, 인물 등을 음성으로 설명...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인 ‘씨잉AI(seeingAI)’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iOS 앱으로 먼저 출시되었는데요.

인공지능 앱 ‘씨잉AI’는 시각장애인에게 주변 환경 및 텍스트, 사물, 인물 등을 음성으로 설명해줍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바코드와 화폐 단위, 메일,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다른 앱의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씨잉AI’의 개발자는 영국 런던에 거주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샤크비 샤이크입니다. 현재 이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스위스, 시각장애 아동에게 교실 안내해주는 ‘셀룰로’ 로봇 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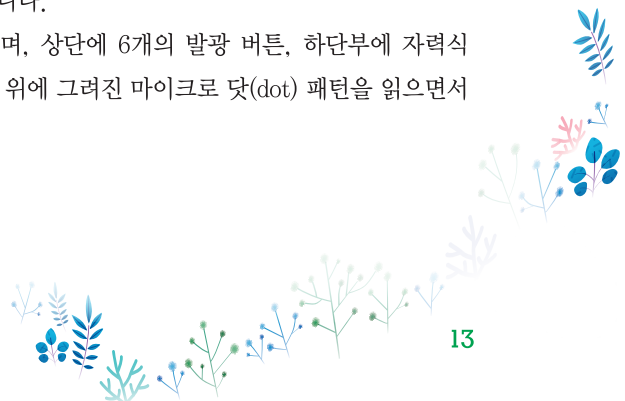
### 셀룰로 미니로봇은 장애물 성격과 위치를 알려주고...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EPFL)에서 교육용 로봇 ‘셀룰로(Cellulo)’를 활용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실내에 있는 주요 물체와 위치를 안내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셀룰로 미니 로봇은 교실을 이동하면서 테이블, 책상, 서가 등 장애물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물체의 성격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학생이 물건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EPFL이 개발한 셀룰로 로봇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상단에 6개의 발광 버튼, 하단부에 자력식 전방향볼 드라이브 등을 갖추고 있어, 카메라를 통해 종이 위에 그려진 마이크로 닷(dot) 패턴을 읽으면서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2017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 개최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KT&G 강화수련원에서 2017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전국의 시각장애 청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성백 제박물관의 김상훈 주무관과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천상미 사회복지사의 주제강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시각장애 청년들은 관심분야 별로 토론을 나누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번 캠프가 시각장애 청년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토토즐 원데이클래스, 타피스트리 장식 만들기!

지난 7월 8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7월 원데이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타피스트리 장식 만들기'가 열렸습니다. 타피스트리는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또는 그런 직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로 최근에는 직물로 제작된 벽걸이, 가리개, 휘장 등 실내 장식품을 의미하는데요. 시각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12명이 1대 1로 짚을 지어 장식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피스트리 장식 만들기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실내 장식품을 만들며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폭삭 속았수다’ 실시!

지난 7월 11일~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온전한 휴식을 통해 가족 내 안정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31명의 돌봄 주양육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협재 해수욕장, 절물 휴양림, 외돌개, 주상절리, 우도 등 주요 관광지들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로 무더위를 날려요!

지난 7월 21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교실인데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베네치아 수상클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참가자 12명과 복지관 직원 및 봉사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수상레저 교실은 육상 교육을 먼저 한 후 실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참가자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한 레저활동으로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와 판매상품(객실정보 및 환경과 가격정보),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체크인시 서류작성(대독 및 대필)을 도와주시고, 지정객실의 안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내부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 TIP

- 1)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이용 가능여부를 충분히 서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정보를 말로 전달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이 원할 때 동행하여 주세요.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8월 205호

발행일 2017년 8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http://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http://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